

# 전주시, 기업 기(氣) 살리기 나선다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집중

전주시가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0배 늘리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전개하는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탄소·3D프린팅·드론·ICT·사물인터넷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탄탄한 전주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25일 열린 신성장산업본부 신년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경제산업분야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키워드로 △중소기업 중심의 전후형 경제 생태계 조성 △미래 먹거리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연기금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허브도시 조성 △첨단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살리기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시는 중소기업 해외수출 집중지원을 위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우수 중소기업 인증제 시행,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강소중소기업 성장사다리사업과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 육성,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

과(특허)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해 3억원의 예산으로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또 기업의 건의사항은 끝까지 해결하는 기업애로 솔루션 관리 강화,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대상 확대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전·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도 다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탄소와 3D프린팅, 드론, ICT융복합, 사물인터넷(IoT)산업 등 5대 신성장산업의 비전과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담은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 미래먹거리 산업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 기업육성 및 사업화 기반 구축에 나선다. 탄소제품 상용화와 기업 집적화를 위해 △메가탄소밸리 구축 △활성탄소 제품 상용화 토달솔루션 구축 △탄소복합제 신상품 개발지원센터 건립 △탄소소재 융·복합 기업 지원 및 유치 활성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중화산2동 성금 기탁 줄이어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중화산2동 회원들은 25일 전주 중화산2동(동장 김봉정)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잠곡선물세트 50박스를 기탁했다. /김영재 기자

시는 3D프린팅의 탄소융복합 신소재 개발과 보급 확산, 농·생명분야를 특화한 ICT융복합 드론사업 육성 및 드론산업 저변확대, ICT융복합산업 기반조성, IoT산업 우수제품 개발지원 등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전주를 금융산업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청년창업지원과 일자리창출 활성화

로 청년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역 청년들과 협력해 청년소통·지원 정책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힘쓰기로 했다. 시장별 개성과 특색을 살려 글로벌 명품시장·문화 관광형 시장·골목형 시장으로 집중 육성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주민주도형 지역특화 생생 골목 조성 과 나들가게 육성지원 등도 추진된다. /김영재기자

# 자연 생태관, 설 연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쉬리·수달·가족영화상영 등 설 당일 제외한 3일간 열려

전주시 수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자연생태관이 설 명절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자연생태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쉬리와 수달 등 전주천의 어류 및 곤충류 체험·전시, 가족영화상영 등 기존 프로그램을 더 알차고 심도있게 구성하고, 4일간의 명절 연휴기간 중 설 당일(28일)을 제외한 3일간 문을 연다.

특히, 전주자연생태관은 이번 설을 맞이해 기획전시실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관람객을 위해 흥미 있는 샌드피쉬의 15여종의 양서류와 파충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2층 영상실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자연생태관을 찾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을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미니어즈'와 '가디언의 전설', '굿다이스' 3편의 가족영화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연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한 전주자연생태관은 전주 수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건물 1층은 쉬리 등 전주천의 물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어종에 대한 전시와 옛 전주천의 모습, 오염된 하천에서 맑고 깨끗한 생태하천으로 변화된 전주천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다테피쉬 체험 및 다양한 열대어종도 관람할 수 있다.

건물 2층에는 전주의 생태를 대표하는 깃대종인 반딧불이와 수달 등 수

변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반딧불이 정원과 전주천 및 주변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형을 담은 디오라마, 포토존 등의 체험·전시물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시는 자연생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관람을 돕기 위해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생태해설사를 1일 3명씩 상시 배치해 자연생태관 전시물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및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 자연생태관이 앞으로 전주천과 치명자산(순암산) 등 잘 가꾸어진 주변 자연생태 자원과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자원 등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 하고 지인 행세 한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자 타인의 이름으로 진술을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씨(37,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면허가 없던 김씨는 2016년 8월 16일 오후 11시 45분경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상태로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하는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 수입쌀 포대같이 위반업자 적발

저가의 가공용 수입쌀을 국산 쌀과 혼합하거나 일명 포대같이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거나 미국산 쌀을 국산 쌀로 포대같이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급식소에 공급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기도 소재 B업체에서 미국산 쌀 9.8톤을 구입해 국내산 쌀과 1:1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미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포대같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자신

이 운영하는 도내 급식 영업점에서 2억3,712만원 상당(59,187인분)의 급식으로 조리해 판매했다.

업자 A씨는 소비자가 미국산 보다 국산을 선호하고, 육안으로 국내산과 미국산 쌀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우리 국민들의 주시한 원산지의 원산지를 속인 것이다.

농관원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반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민간 감시기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원산지 둔갑현상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부정부통신고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재용 기자

## 만취상태로 사고 내고 도주한 부안군 공무원 검거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부안군 소속 공무원 문모씨(47)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4일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최모씨(39)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최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300m 가량을 골목길로 도주하다가 달미를 붙잡혔다.

검거 당시 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대상자였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 여대생 성폭행 의혹 도청 공무원 검찰 송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전씨(50,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씨는 2016년 12월 10일 오전 1시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의 한 모텔로 여대생 B(24)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전북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참여하며 자원봉사로 일하는 B씨를 알게된 뒤 뒷풀이 장소로 불러내 술을 먹인 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조사에서 "서로 합의간에 관계를 맺었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전씨에게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들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은 일치하지만, 여성 측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관계 시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 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5일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씨(22,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9월 14일 오전 2시 15분경 전주시내 한 길가에서 친모를 때려 밀치며 욕설을 퍼붓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치고 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근 기자

#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